

전남대학교 젠더연구소와 함께하는 북토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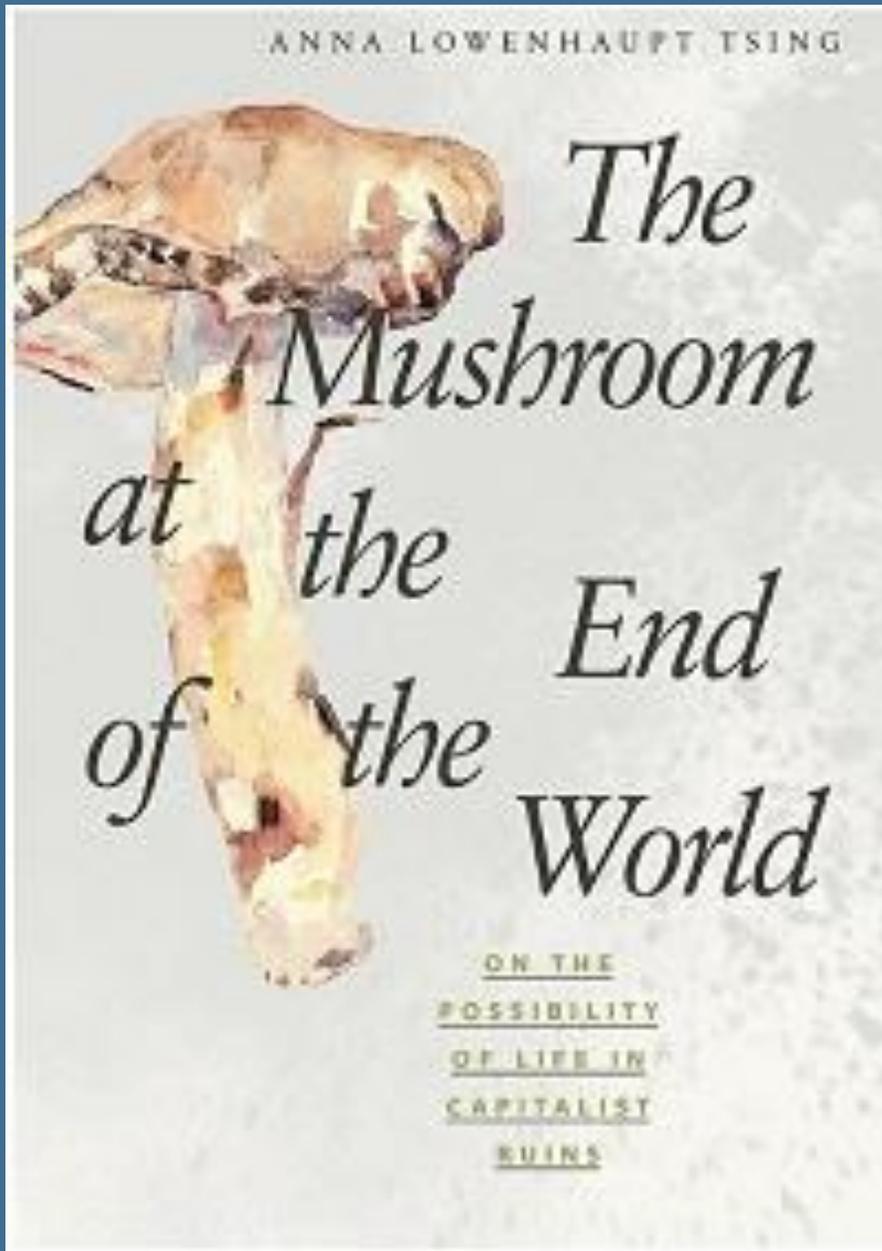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

노고운

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gowoonnoh@gmail.com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버섯을 통해 내 감각은 되살아난다.  
… 버섯은 불현듯 나타나, 다행히도 내가 그곳에 있음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면 불확정성의 공포 속에서도 아직 즐거움이 있음을 알게 된다”(24).



2015년 미국  
프린스턴대학  
출판사에서 첫  
영문본 발간.

이후 여러  
언어로 번역됨.

2023년  
한글본 발간.

## 세계 끝의 버섯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삶의 가능성에 대하여

삶이 엉망이 되어갈 때 여러분은 무엇을 하는가?  
나는 산책을 한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버섯을 발견한다.

불확정성과 불안정성의 상황, 안전성에 대한 약속이  
부재하는 삶을 탐구하기 위해 버섯과 함께 떠난 여행 이야기

“애나 칭은 우리를 압도하는 긴박하고 심각한 상황에서 이 상황을 자유할 수  
있는 진정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 책을 앞으로의 길잡이로 삼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어슐러 K. 르 권(소설가)

“우리가 ‘자본주의의 폐허’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면, 경제, 문화, 생물학, 생존  
전략 사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연결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사례가 필  
요합니다. 애나 칭은 세계화된 버섯이라는 인기 힘든 놀라운 사례를 제공합니  
다.” —브뤼노 라투르(철학자, 사회학자, 인류학자, 과학사상가)

9es2w



저자

애나 로웬하웁트 칭  
Anna Lowenhaupt Tsing

인류학자.

UC Santa Cruz 교수  
Aarhus Univ. 인류세연구센터  
소장  
마츠타케 월드 리서치 그룹 조직

2016년 빅터 터너상 수상  
2016년 그레고리 베이트슨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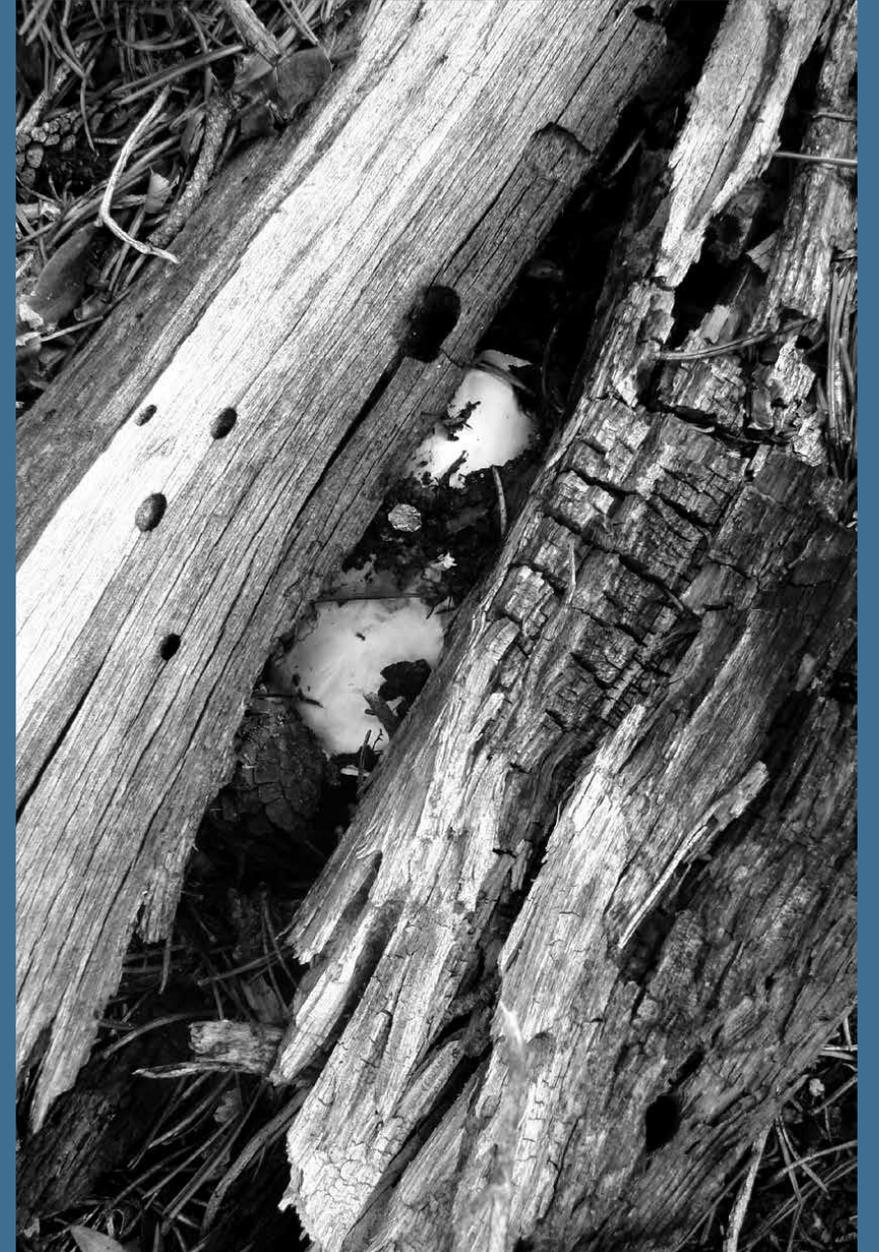
## 우리의 시대는 불안정성과 불확정성의 시대

-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그리고 현재는 기후비상 상황
- 지구 온난화를 지나 지구 열대화 시대
- 산업화로 인해 폐허가 되고 쓰레기로 넘쳐나는 지구, 그리고 생물종 대멸종의 시대
- 더 자주 찾아오는 경제(자본주의) 위기,
- 비정규직 증가, 인플레이션, 사회복지 감소 등 경제적 불안정성

“그렇다면 구태여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을까?”(52)

“오늘날 전 지구적 풍경은 온통 이 같은 폐허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생명이 다했다고 여겨지는 이런 장소들도 여전히 생기 넘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30).

“내 눈에는 흙과 가지만 앙상한 소나무밖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양동이와 막대기를 든 카오는 아무것도 없는 땅을 깊이 찌르더니 두툼한 버섯갓을 꺼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그곳에 버섯이 있었다”(41).



인간이 교란한 숲에 나타나는 송이버섯.

“1945년 히로시마가 원자폭탄으로 파괴됐을 때, 폭탄 맞은 풍경 속에서 처음 등장한 생물이 송이버섯이었다고 한다”(24).

버섯처럼 폐허에 존재하는 생명, 그들이 이루는 배치를 알아차리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이상한 신세계에 주목하고, 상상력을 펼쳐 이 세계의 윤곽을 감지해야 한다. 이때 버섯이 도움을 준다. 폭탄 맞은 풍경 속에서도 기꺼이 나타나고자 하는 송이버섯 덕택에 이제 우리는 함께 사는 집인 이 폐허를 탐색할 수 있다”(26).

“산업화의 약속이라는 유혹과 그에 따른 붕괴를 넘어, 훼손된 풍경에서  
창발하는 것은 무엇인가?” (47)

“기대할 바가 줄어든 이 시대에 나는 많은 생물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도,  
정복하지도 않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교란에 기반한 생태를 찾고 있다”(28).

“숲의 가장 신비로운 특성 가운데 하나는 파괴된 후에 이따금씩 재생한다는 것이다. ... 그것을 부활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부활은 숲이 지닌 생명의 힘이고, 벌채된 장소를 수복하기 위해 씨앗을 퍼뜨리고 뿌리와 줄기를 뺏어가게 하는 숲의 능력이다. ...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부활을 저지시키는 방법을 안다. 그러나 그것이 부활의 가능성을 알아차리는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충분히 좋은 이유가 되지는 못하는 것 같다”(315-6).





## 책의 구성

### Part II:

미국 오리건주의 숲에서 송이버섯을 채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경험과 그들이 채집한 송이버섯이 일본에서 상품/선물이 되는 과정을 추적하며 자본주의 내부와 외부 모두에 존재하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본다.



## 책의 구성

### Part III:

다종의 세계-만들기를 살펴본다. 숲들이 인간에 의해 파괴되고 폐허가 된 역사적 과정(특히 송이버섯이 나타나는 미국 오리건주와 일본의 숲이 서로 다른 시기에 파괴된 과정을 비교)과 그러한 곳에서 나타나는 다종의 얽힘, 관계맺음, 변형, 공생을 살펴본다.



## 책의 구성

### Part IV:

일본,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 송이버섯을 채집하고 송이버섯 숲을 재생하려는 노력에 대해 살펴보면서, 인간-비인간의 공생이 일어나는 사유화된/되는 땅에서 나타나는 잠복해 있는 공유지(latent commons)와 그곳이 보여주는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 다종민족지(Multispecies Ethnography)

- 문화란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비인간이 함께 구축하는 것이다.
- 인류를 하나의 독립된 집단으로 보며 다른 모든 생물종 및 비인간 물질과 구별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을 포함한 다종의 존재들의 얽힘, 관계맺음, 공존, 공생, 고통 나눔 등을 보는 연구다.
- “-되기“: 생물의 기본 단위를 단일종이 아닌 다종의 복합체로 이해하고, 이 다종의 생물들이 함께 이루는 삶을 하나의 '되기'로 해석한다. 인간은 이러한 다종의 되기에서 그 중심이 아닌 일부분에 위치할 뿐이다.

## 다종민족지(Multispecies Ethnography)

- 다종의 세계-만들기, 교란, 오염
- 송이버섯 곰팡이와 소나무, 송이버섯을 좋아하는 동식물(칸디케인, 엘크 등)을 포함하는 숲에 사는 다양한 생물과 무생물, 일본의 이리아이 소농민과 마츠타케 크루세이더스, 미국의 송이버섯 채집인과 구매인(백인 전역 군인, 아시아계 난민, 아메리카 원주민, 미등록 라틴아메리카인), 중국의 소농민과 사장들...
- 다성음악적 다운윌
- 심바이오포이에시스(symbiopoiesis)
- 플랜테이션 농법으로 대표되는 자립적 재생산, 순수성, 확장성과 대비

## 다종민족지(Multispecies Ethnography)

- 칭은 생물이 생존하는 방식이 역사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이종 간 관계(interspecies relationships)에 의존한다고 본다. 즉, 생물종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단위가 아니며, ‘순수한’ 자기 성분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생물종은 다른 생물종과의 관계를 형성하며 서로의 신체를 오염시키면서 공동 발달해왔고 공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종 간의, 다종 간의 관계맺음은 우연적인 사건이기에 그것의 결과 또한 일관적이지 않고 불확정적이며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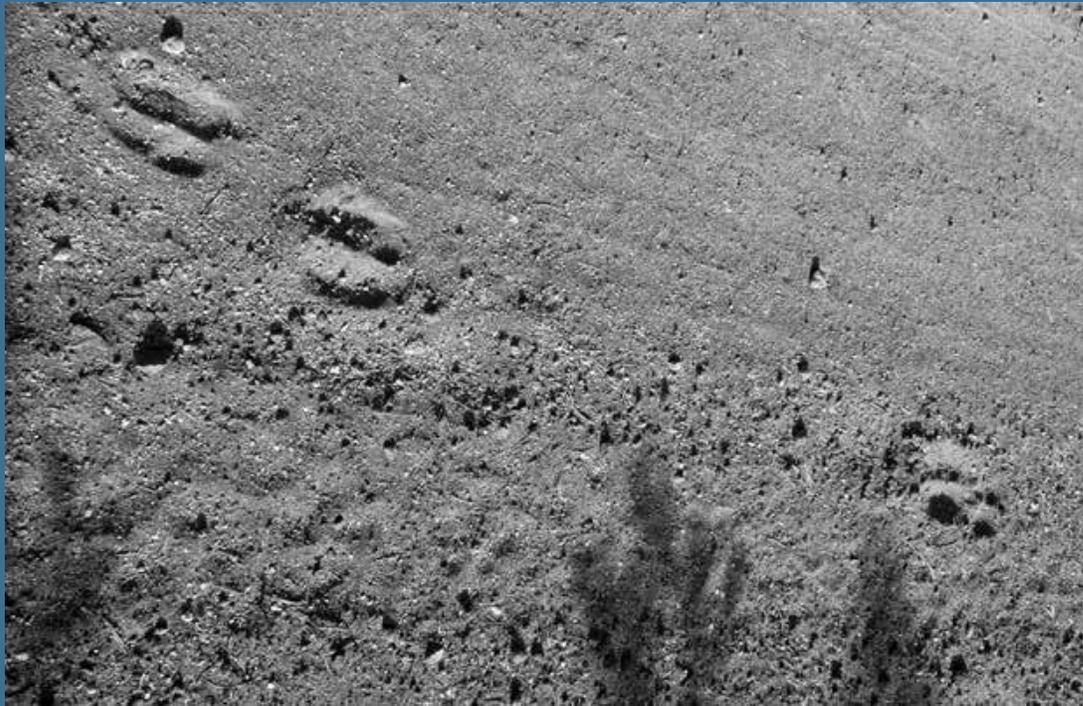
## 다종민족지(Multispecies Ethnography)

“사탕수수 클론과 달리 송이버섯은 다른 생물종과 변형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송이버섯은 숲의 특정한 나무와 어울려 지내는 땅속 곰팡이의 자실체(子實體)다. … 이 변형적인 상리공생 때문에 인간의 송이버섯 재배는 불가능했다. … 송이버섯은 플랜테이션 농장의 환경 조건에 저항한다. 송이버섯에게 필요한 것은 숲의 역동적인 다종적 다양성, 그리고 이를 통해 서로를 오염시키는 관계성이다”(85).

## 배치

“배치는 삶의 방식을 모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방식을 만들어낸다. 배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다음과 같이 질문하게 된다. 어떻게 모임은 때때로 부분들의 합보다 더 큰 ‘사건(happenings)’이 되는가? 만약 진보를 뺀 역사가 불확정적이고 다각적이라면, 배치가 그것이 지닌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가?”(57)

“나의 참나무와 소나무와 송이버섯이 특정한 ‘유형’이기 때문에 배치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배치를 만들어가면서 그들 자신이 되어간다”(289).



## 글로벌 자본주의 연구

- 패치
- 번역
- 주변자본주의적
- 구제촉적
- 확장성과 규모

## 글로벌 자본주의 연구

“공급사슬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대목 중 하나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노동이나 원료를 합리화하지 않고도 부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합리화하는 대신에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공간을 가로질러서 번역하는 작업이 필수적인데, 나는 그러한 공간을 생태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빌려 ‘패치’라고 부르겠다”(118).

## 글로벌 자본주의 연구

- 소외가 일어나지 않는 자유의 트로피에서  
상품으로, 그리고 다시 선물로
- 번역을 통해 자본주의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에 존재
- 신자유주의, 제국주의, 군사주의에 의해  
가능해진 주변자본주의적 삶
- 자본주의가 장악했지만 장악하지 못한 세계



## 글로벌 자본주의 연구

“이 모든 것은 경쟁이라는 공연에서 행해지는 연기이고,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드라마라는 것이다. 이제 어두워졌고 채집인들이 구매 텐트에 버섯을 팔려고 줄을 서 있다고 상상해보자. ... 선별 작업은 하나의 예술이다! 선별하는 일은 눈을 사로잡는, 다리는 움직이지 않은 채 팔을 재빠르게 움직이는 불 쇼와 같다. 백인들은 저글링 하듯이 한다. 반면에 또 다른 뛰어난 구매인인 라오인 여성들의 선별 작업은 궁중 라오댄스처럼 보인다. 훌륭한 선별자란 버섯을 만지기만 해도 그 버섯에 대해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다. 유충을 품고 있는 송이버섯은 일본에 도착하기도 전에 함께 들어 있는 다른 버섯까지 망칠 것이다. 그래서 구매인은 반드시 그런 버섯을 거부해야 한다. 유충을 찾기 위해 버섯을 자르는 사람은 미숙한 구매인이다. 훌륭한 구매인은 느낌으로 안다. 또한 그들은 버섯의 출처를 냄새로 알아낼 수 있다. 숙주 나무, 채집한 지역, 로도덴드론과 같이 크기와 모양에 영향을 주는 다른 식물들의 유무 등을 냄새로 맞추는 것이다. 모두가 훌륭한 구매인의 선별 과정을 즐겁게 지켜본다. 그것은 기량을 마음껏 뽐내는 대중 공연이다”(154).

“송이버섯은 그것의 삶이 선물로서 시작되고 선물로 끝나는 자본주의 상품이다. 그것이 온전히 소외된 상품으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몇 시간일 뿐이다. 주기장에서 수송 상자에 담겨 재고품의 일부로 기다리는 시간과 비행기에 실려 이동하는 시간이 그것이다. 그러나 그 시간은 중요하다. 공급사슬을 지배하고 구조화하는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관계는 그 시간의 가능성 안에서 접합되어 있다”(238).

## 글로벌 자본주의 연구



## 잠복해있는 공유지

- “공동의 목적에 동원될 수 있는 얼힘”(248)



## 잠복해있는 공유지 latent commons

“다가오는 여러 번의 다양한 가뭄과 겨울에 직면해 최종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버섯의 이러한 마지막 쏟아짐 현상에서 나는 제도화된 소외의 한가운데에 존재하는 얼힘의 일시적 순간들을 찾아본다. 그러한 곳들이 협력자를 찾을 장소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장소를 잠복해 있는 공유지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 장소들은 두 가지 의미로 잠복해 있다. 첫째,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음에도 우리는 그곳을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곳이 미개발되었다는 점이다. 그곳은 현실화되지 않은 가능성으로 들끓는다. 그곳은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곳은 브라운의 정치적 듣기에서 그리고 연관된 알아차림의 기술에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들이다. 그곳은 공유지 개념을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다음과 같이 부정문으로 특징짓는다.

잠복해 있는 공유지는 인간 집단 거주지에만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잠복해 있는 공유지가 모든 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잠복해 있는 공유지는 잘 제도화되기 어렵다.

잠복해 있는 공유지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450-2).

## 알아차림의 기술 The Art of Noticing

“우리는 인간 영웅이 등장하지 않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없다. 이 장에서 다룰 것은 바로 그러한 퍼즐이다. 나는 인간이 참여자 중 하나일 뿐인 모험의 주인공으로서 풍경을 보여줄 수 있을까?”(273)

“수많은 시대와 장소를 가로지르면서 다른 존재의 궤적을 변형시키고 자신의 존재로 그 현장을 바꾼 소나무의 능력, 즉 역사를 만드는 능력을 보일 것이다”(296).

## 알아차림의 기술 The Art of Noticing

“유기체는 그들이 인간과 동등한 자질(의식하는 주체로서, 의도를 지닌 의사소통자로서, 또는 윤리적 주체로서)이 있음을 보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생존 가능성, 비영구성, 창발에 관심이 있다면 풍경의 배치 활동에 주목해야 한다. 배치는 연합하고 변화하고 해체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러한 이야기다”(280).

“나는 그들이 만드는 세상을 알아차리면서 그들이 확산시키는 경로를 따라간다”(289).

